

나쓰메 소세키의 『산시로』와 염상섭의 『해바라기』 속 여성주인공의 결혼관 비교*

권혁건**
kwon6134@hanmail.net

전수진***
99ao126@hanmail.net

<目次>

- | | |
|-------------------|--------------|
| 1. 서론 | 4. 최영희의 결혼조건 |
| 2. 선행연구 | 5. 유사점과 차이점 |
| 3. 결혼을 위한 미네코의 탐색 | 6. 결론 |

主題語: 산시로(sanshiro), 해바라기(sunflower), 신여성(the new woman), 연애 강자(love stronger), 여주인공의 결혼관(ideas on marriage of female heroine), 유사점(a point of similarity), 차이점(difference)

1. 서론

일찍이 염상섭(廉想涉, 1897~1963)은 일본유학을 통해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 이하 소세키로 간략하게 표기함)의 문학에 매료되었다. 비록 그 스스로가 일본문단에서 배운 것은 기교뿐이라고는 했지만 소세키에 대한 경외만큼은 남달랐다. 예컨대 염상섭의 「1차 일본 유학(1912)」¹⁾ 후반기에 쓰여진 습작소설 『박래묘』(1920. 4 「삼광」3호에 발표)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1905.1~1906.7 「호토토기스」에 연재)의 영향을 받아 쓴 듯 내용적 유사성은 물론이고, 소세키를 직접 언급하고 있을 정도이다.

염상섭이 유학시절 당시 최초의 공식적인 글쓰기를 통해 언급한 주제는 「여성문제」였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IA5A2A03044310)

** 東義大學校 人文大學 日語日文學科 教授

*** 東義大學校 人文大學 日語日文學科 講師

1) 김경수(2010) 「1차 留學時期 廉想涉 文學 研究」 『語文研究』 제38권 제2호, p.294

1918년 3월 <女子界>에 발표한 「婦人の覺醒이 男子보다 緊急한 所以」²⁾에서는 여성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 즉 구(舊) 도덕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사고를 하는 근대 도시 여성의 면모가 돋보이는 표현을 한다. 그러한 사상적 바탕이 근거가 되어 소설화 된 것 중의 하나가 『해바라기』(『동아일보』, 1923.7.18~1923.8.26)일 것이다.

『해바라기』는 실제 조선의 신여성 나혜석이 김우영과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가는 이야기를 소설화 한 것이다. 나혜석은 1896년 4월, 경기도 수원에서 신문학을 존중하던 개화된 가정의 5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1913년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유학을 전공했으며, 유학시절 첫사랑 최승구 외에도 이광수, 염상섭 등과 교우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쿄 유학생 동인지였던 『학지광』에 여권신장을 옹호하는 「이상적 부인」 등의 글을 발표했다. 염상섭은 함께 일본 유학을 했던 나혜석의 삶을 모티브로 삼아 『해바라기』속 근대 여성의 면모를 갖춘 여주인공 최영희를 탄생시켰다.

소세키 작품 『산시로』(1908. 『아사히신문』연재) 속에는 미네코(美禰子)라는 도쿄제국대학에 재학중인 엘리트 여대생이 등장한다. 미네코는 규슈 구마모토 지방 시골 출신 청년 오가와 산시로가 도쿄제국대학에 입학하여 캠퍼스 생활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 자유분방하면서도 주체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 여대생이다. 규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생 처음 도쿄에 상경한 산시로 눈에는 미네코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근대 도시여성으로 비쳐진다. 『해바라기』의 최영희나 『산시로』의 미네코는 근대교육 중에서도 최상위의 레벨이라 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의 수혜를 받는다. 학력이 갑자기 중시되고 대학 졸업장이 대접을 받게 되는 근대시대 초기에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이 등장한 『해바라기』와 『산시로』에 묘사된 결혼관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보는 것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오늘날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고려할 때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테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약 100년 전에 발표된 두 작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미네코와 최영희의 결혼관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두 여성의 삶에 있어 결혼관이 어떤 특징을 갖고 표현되어 있는가를 비교하여 점검해 보려고 한다.

2. 선행연구

나쓰메 소세키의 『산시로』속 여주인공 미네코를 다룬 연구는 2000년대 이르기까지 꾸준히

2) 김정수, 위의 논문, p.295

행해져 왔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이즈미 마사히로(大泉政弘)는 미네코가 근대를 살아가는 지식인 여성이지만 산시로에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진흙탕을 건널 수 없었던 것처럼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스스로의 인식과 행동에 불일치³⁾를 인정하고 그 처단으로서 노노미야도, 산시로도 아닌 제3의 인물과 결혼을 한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스즈키 스즈에(鈴木すず江)는 옷차림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한 하이칼라⁴⁾였던 미네코가 노노미야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는 순간 산시로와의 관계를 「정면으로 부딪혀보지도 않고 상식적인 결혼을 택했다⁵⁾고 논하고 있다.

유상희는 미네코가 신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결혼에만 집착할 뿐 직업을 가지고 독립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며, 다른 여성과 다를 바 없이 사회통념에 순응해 버리는 양상을 보인다⁶⁾고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소세키 여성관내지 결혼관의 한계점이라 주장하고 있다.

노종상은 『산시로』의 등장인물들을 체질로 분류하여 각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미네코를 사계 중 「봄의 체질⁷⁾로 규정하여, 자기체질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대 체질을 찾아 산시로와 노노미야가 아닌 제3의 남자와 결혼했다고 논하고 있다.

이명순은 『산시로(三四郎)』에 나타난 미네코의 이중의식 고찰⁸⁾을 통해 그녀의 행동과 심리에 나타난 이중적 면모와 결혼에 있어서도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고수하지 못한 채 현실과 타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염상섭의 『해바라기』를 다룬 선행 연구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황수진은 『해바라기』에 대해 신여성을 모티브로 한 소설 중에서 남성작가에 의해 쓰여진 소설로, 염상섭의 「신여성에 대한 흠집내기⁹⁾라는 부정적 시각이 드러난 작품이라 논하고 있다.

최혜실은 『해바라기』에 나타난 한 개인의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감정인 애정이 돈에 의해 교환되는 「금전결혼¹⁰⁾을 통해 당대 지식인의 의식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고 논하고 있다.

3) 大泉政弘(1989)『『三四郎』論—美禰子・自己処断としての結婚—』, p.153
 4) 鈴木すず江(2003)『『三四郎』と美禰子の装い』『青山学院女子短期大学紀要』Vol.57, p.88
 5) 鈴木すず江, 위의 논문, p.87
 6) 유상희(2006)「나쓰메소세키의 산시로 소고-산시로와 미네코의 연애를 중심으로」『일본근대문학-연구와 비평-』Vol.5, 한국일본근대문학회, p.56
 7) 노종상(2011)「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산시로(三四郎)』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체질” 연구」『인문학연구』Vol.85,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305
 8) 이명순(2002)「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산시로(三四郎)』에 나타난 미네코의 이중의식 고찰」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5
 9) 황수진(1999)「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상 연구」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5

안유진은 그의 논문에서「여성인물들은 근대적 개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경제적인 자립으로 인식하고, 결혼을 돈과의 교환」¹¹⁾으로 받아들였다고 논하며 『해바라기』의 최영희를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여성」¹²⁾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사회 통념과 현실에 순응하고, 돈으로 귀결된 여주인공들의 결혼을 언급하면서 신여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두 작가의 신여성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잘 나타내고 있다.

3. 결혼을 위한 미네코의 탐색

『산시로』에 묘사된 미네코라는 여성은 소세키 작품 가운데 여성주인공으로는 단 한번 나오는 도쿄제국대학 재학 엘리트 여대생이다. 미네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쿄제국대학이라는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해독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느낀 메이지 정부는 제국대학을 설립하였고, 제국대학 졸업생들에게는 취업과 급료 책정 등에 있어 각종 특혜를 주어 동아시아 사회에서 엘리트 지배층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제국대학의 창설 목적은 엘리트 양성에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경쟁을 통해 극소수 엘리트를 선발하여 교육시켰다. 적격자가 없으면 학생을 뽑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세키가 제국대학에 입학할 당시 영문과에는 유일한 재학생이자 2년 선배인 다치바나 마사키(立花政樹) 한 사람뿐이었다. 다치바나 마사키는 영문과 제1회 입학생이며 소세키는 제2회 입학생으로, 그 전해인 1889년(明治22)에는 입학생이 없었다.

제국대학령 제1조에는 「제국대학은 국가의 수요에 부응한 학술 기예」¹³⁾를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근대 초기 입신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도쿄로 올라가 도쿄제국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로 여겨지던 시대에 남학생과 경쟁을 통해 도쿄제국대학에 들어간 미네코는 천재에 가까운 여성으로 시민들 눈에 비쳐졌을 것이다.

미네코는 도쿄제국대학의 여대생으로 노노미야(野野宮)를 좋아하지만 자신이 생각한대로

10) 최혜실(1993)「염상섭 소설에 나타나는 근대성-돈과 애정의 갈등구조를 중심으로-」『先淸語文』제21집, p.172

11) 안유진(2003)「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연구-1920~30년 중·장편소설을 중심으로-」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12) 안유진, 위의 논문, p.71

13) 도미타 쇼지 저, 유재연 옮김(2008)『그림엽서로 본 일본 근대』논형, p.54

그와의 사이가 진전되지 않자 산시로에게도 관심을 보이며 그를 이용해 노노미야를 자극한다. 하지만 결국 노노미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금테 안경을 쓴 제3의 남자」와 결혼한다. 이 과정에서 「러일전쟁 후 일본사회에 등장한 신여성의 ‘자유 연애결혼’ 지향」¹⁴⁾의 면모가 미네코의 말과 행동에서도 나타난다.

국화인형 전시회를 관람하던 날 노노미야와 가벼운 말다툼을 한 미네코는 기분이 좋지 않은 채 일행들과 떨어져 홀로 길을 걷는다. 산시로는 미네코가 걱정이 되어 그녀의 기분을 살피며 따라가는데, 미네코는 산시로에게 「제가 그렇게 건방지게 보이나요?」¹⁵⁾라고 물으며 노노미야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노출시킨다. 그리고 미네코는 미야를 영어로 「스트레이 십(Stray Sheep:길 잃은 양)」¹⁶⁾이라고 한다며 산시로에게 가르쳐 주자 그는 알 듯 모를 듯한 이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미네코의 의도를 생각하며 잠자코 있었다. 산시로는 미네코가 이끄는 감정의 줄타기에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상대에 대한 마음이 크고 더 좋아할수록 연애 약자라고 가정한다면, 이들의 연애 감정 양상을 등호식으로 표현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노노미야>미네코, 미네코>산시로

즉, 산시로는 이들 세 남녀 사이에서 가장 약자였으며, 미네코의 관심이 자신보다 노노미야에게 기울어져 있음에 신경을 쓴다. 미네코와 산시로는 각기 연애 약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미네코는 노노미야에 대한 연애 약자로서의 서운함을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¹⁷⁾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한편, 미네코에 대한 산시로의 연애 약자로서의 모습은 미쓰코시 백화점 포스터 속 예쁜 여자를 보면서 미네코를 닮았다는 부분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친구 요지로는 미네코가 약간 빠드렁니라서 늘 이가 드러난다고 했지만 산시로는 오히려 그런 치열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외에도 산시로의 미네코를 향한 호감은 대학 연못에서 이름도 모른 채 미네코를 만났을 때부터 친분이 쌓인 이후에도 미네코의 외모를 평하는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14) 유상희, 앞의 논문, pp.294-295
15) 나쓰메 소세키, 漱石全集(1966)『三四郎』[5], 岩波書店, p.135, 이하 「산시로」의 인용은 이 텍스트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페이지만 표기하기로 한다.
16) 나쓰메 소세키, 위의 책[5], p.135
17) 나쓰메 소세키, 위의 책[5], p.134

그녀의 피부는 살짝 그을린 빛을 띤 황갈색이었다. 그리고 살결이 아주 고왔다. 산시로는 여자의 피부는 무조건 그런 색이어야 한다고 단정 지었다.¹⁸⁾

쌍꺼풀이 지고 옆으로 길게 뻗은 눈매가 차분한 인상을 준다. 유달리 검은 눈썹 밑에서 반짝이는 눈동자는 생동감이 있다. 동시에 가지런한 이가 드러났다. 그 치아와 얼굴빛은 산시로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대조였다.¹⁹⁾

불이며 턱의 살에는 탄력이 있다. 군살이 전혀 없는 느낌이다. 살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뼈 자체가 부드러운 듯 여겨진다. 그윽한 느낌을 주는 얼굴이다.²⁰⁾

미네코의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생동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언가에 의해 억압받거나 강요받은 흔적은 없으며 누군가에 의해 기가 죽거나 기대고자 하지도 않는다. 이는 산시로와 진흥당 길을 내려올 때 산시로의 도움을 거절하는 모습이나 돈을 빌려주기 위해 거리낌 없이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여자는 제멋대로 자랐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집에서는 보통 여자 이상의 자유를 누리며 만사 제 뜻대로 행동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누구의 허락도 얻지 않고 나와 함께 길을 걷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연로한 부모가 없고, 젊은 오빠가 자유방임주의자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여기가 만약 시골이라면 분명히 난처할 것이다.²¹⁾

산시로는 집안 어른의 허락도 없이 자신과 시내를 활보하는 미네코에 대해 보통 여자 이상의 자유를 누리며 제멋대로 자라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만약 이곳이 도시가 아닌 시골이었다면 분명히 난처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산시로와 나란히 시내의 거리를 활보하며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미네코의 모습에서 도시 여성의 당당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저금통장과 도장을 산시로에게 주며 30엔을 인출하게 하여 그 돈을 선뜻 빌려 주는데 여기에서는 미네코가 산시로보다 금전적 우위의 위치를 점하며 연애적 감정뿐만 아니라 금전의 융통 면에 있어서도 강자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유상희는 「당시 미혼여성의 몸으로서 자신의 저금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도 흔하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미네코의 이런 대범한 태도는 ‘신여성’으로서의

18) 나쓰메 소세키, 위의 책[2], p.36

19) 나쓰메 소세키, 위의 책[3], p.65

20) 나쓰메 소세키, 앞의 책[3], p.66

21) 나쓰메 소세키, 앞의 책[8], p.205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는 것²²⁾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미네코를 두고 히로타 선생과 하라구치가 미네코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면 가지 않으므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독신으로 놔두는 게 좋다고 서로 동의하는 장면에서 미네코의 근대적 연애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즉, 결혼 상대에 대한 자기만의 소신을 가진 여성으로 미네코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네코가 마음에 두고 있던 노노미야와의 관계는 엇갈리기만 하고 산시로와의 관계도 미온적이기만 하다. 미네코가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과도 이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네코가 마음에 품었던 노노미야는 「대단히 학문을 좋아해서 연구업적도 상당하다. 그 분야의 연구자라면 서양인이라도 모두 노노미야의 이름을 알고」²³⁾ 있을 정도로 유능했으며, 「지하실에서 광선실험을 하며」²⁴⁾ 지내느라 늘 바빴다. 하지만 노노미야가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물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그를 크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나 박봉에 시달리는 현실에 처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노노미야에게는 요시코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늘 바쁜 오빠의 무관심에 심술이 나서 아프니 빨리 와달라는 전보를 보내지만, 오히려 노노미야는 「바쁜 때에 시간을 낭비시킨 건 어리석은 짓」²⁵⁾이라며 동생을 맹추라 놀린다. 이렇듯 학문에 대한 자기 세계가 강했던 노노미야는 여동생의 외로움을 헤아린다고 주변 사람을 살갑게 챙기며 애정과 관심을 쏟기에는 너무나도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물리학자로서 늘 실험이나 연구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쉬이 느끼는 외로움이라든지 소외감에 있어서 둔감했을 뿐 아니라 타인의 그런 감정을 읽는 데에도 무딘 연구자처럼 묘사되었다.

미네코의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는 노노미야의 조건을 배우자 조건에서 차치하더라도 연애의 기본이 되는 상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원활하게 파악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하는 노노미야가 야속한 것이다. 다소 위선적이기는 하지만 미네코의 말과 행동이 노노미야에 대한 애정의 발로라는 것도 깊게 헤아리지 못한 채 두 사람 사이는 개선되지 못한다. 물론 미네코는 노노미야의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존경해 마지않으며 칭찬하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의 이면을 눈치 채지 못하고 학자특유의 무심한 기질을 가진 노노미야 때문에 상처 받고, 그를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라고 원망한다. 이는 소통의 문제로, 이성적인 노노미야와 그에 비해 감성적인 미네코는 결과적으로 불통의 관계라고 할 것이다. 이런 불통으로 인한

22) 유상희, 앞의 논문, p.47

23) 나쓰메 소세키, 앞의 책[3], p.49

24) 나쓰메 소세키, 앞의 책[3], p.60

25) 나쓰메 소세키, 앞의 책[3], p.60

미네코의 소외감과 고독감은 두 사람의 비행기에 대한 언쟁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미네코는 상대적으로 연애 약자인 산시로에게는 당당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노노미야에게는 쉽게 자신의 연애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 솔직한 말과 행동대신 산시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질투심을 유발하고 그러면서도 노노미야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 주기를 바라지만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다. 미네코의 소외감과 고독감은 부부가 되었을 때 봉착하는 문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즉 결혼 후에도 충족되지 않는 정신적 위안의 결핍이라든지 풍족하지 못한 생활은 근대 도시에서의 삶을 힘들게 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산시로와의 경우도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갓 도쿄에 올라온 구마모토 시골 출신의 순박한 청년 산시로에게 미네코는 버거운 상대이다. 그가 처음 연못가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기차에서 만난 여자와 오버랩 되면서 겁이 났던 일이나 국화인형 전시회에서 일행들과 떨어져 걷는 미네코를 데리러 갔을 때 그 스스로가 느낀 것처럼 미네코는 「감당하기 힘든 여성」²⁶⁾인 것이다. 이는 거꾸로 뒤집어 미네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자신을 감당해 줄 수 없는 남자와 결혼생활을 한다는 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네코에게 있어 산시로는 약간의 호기심의 대상으로 노노미야의 환심과 질투를 사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노노미야를 대체해 줄만큼 매력적인 연애대상은 아니었다. 미네코가 노노미야를 포기하는 순간 산시로를 이용한 삼각관계도 정리되었다. 그리고 미네코는 산시로에게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²⁷⁾라는 말을 건네며 그를 이용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세 사람의 이슬이슬한 연애 줄타기는 노노미야도, 산시로도 아닌 미네코 오빠의 친구라는 제3의 인물의 등장으로 결말을 맺는다. 노노미야의 환심을 사기에는 불충분했지만, 산시로와의 감정적 밀고 당기기에서는 언제나 승리했던 미네코는 요시코와 혼담이 오갔던 오빠 친구와 결혼하기로 결심한다.

이러한 미네코의 결혼 결정에 대해 유상희는 「사회통념에 순응한 결과」²⁸⁾로 해독하고 있다. 이명순은 자신의 의지를 고수하지 못하고 「현실 세계와 유리한 타협을 선택 한 것」²⁹⁾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네코는 자의식에 눈 뜬 근대 도시 여성이라는 점이며, 누군가의 강요나 종용에 의해 결혼을 선택할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평소 그녀의

26) 나쓰메 소세키, 앞의 책[5], p.134

27) 나쓰메 소세키, 앞의 책[12], p.306

28) 유상희, 앞의 논문, p.56

29) 이명순, 앞의 논문, p.55

말이나 행동 그리고 주변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면 가지 않아, 권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독신으로 놔두는 게 좋아.」³⁰⁾「남편으로서 존경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시집갈 생각이 애당초 없으니까」³¹⁾라고 그녀를 평하는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비록 노노미야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나와 결혼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미네코 남편에 대한 묘사는 많지 않지만 적어도 미네코가 결혼 상대자로 선택한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이 깊으면서도 그녀 스스로가 존경할 수 있고, 그렇다고 순박한 시골 청년 산시로처럼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되지 않는 재력 있는 사람으로 짐작된다. 미네코의 남편이 된 제3의 남자는 산시로가 미네코에게 빌린 돈 30엔을 갚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을 때 인력거를 타고 나타났으며 미네코와는 이미 친분이 있었다. 「검은 모자를 쓰고 금테안경을 낀 것이 멀리서 봐도 번지르르한 사내」³²⁾로 같은 남자인 산시로가 봐도 재력 있어 보였으며,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가름한 멋진 사람」³³⁾이었다. 마지막 장에서 결혼한 「미네코가 남편을 따라」³⁴⁾ 자신이 모델을 썼던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 전시회를 찾은 모습과 완성된 그림을 보며 화가 하라구치, 모델 미네코, 남편이 서로를 칭찬하는데 「가장 정중한 답례를 한 것」³⁵⁾은 남편이라는 점에서 그가 얼마나 아내 미네코의 일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미술이나 문학에 관심은 있으나 주로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 따라나섰던 노노미야와 달리 미네코의 남편은 아내 미네코가 그를 따라왔다는 표현을 통해 그녀 스스로가 존경할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비록 연애평정에서 감정의 소비와 고뇌가 있었지만 미네코는 오히려 자신이 바라던 결혼의 조건들을 두루 갖춘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며 절충적인 주체적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한다.

4. 최영희의 결혼조건

나혜석과 김우영의 결혼을 모델로 한 『해바라기』는 「예술가인 신여성 영희가 만선건물주식

30) 나쓰메 소세키, 앞의 책[7], p.186

31) 나쓰메 소세키, 앞의 책[12], p.297

32) 나쓰메 소세키, 앞의 책[10], p.262

33) 나쓰메 소세키, 앞의 책[10], p.263

34) 나쓰메 소세키, 앞의 책[13], p.307

35) 나쓰메 소세키, 앞의 책[13], p.308

회사 전속기사이자 총독부 토목과 촉탁인 순택과 결혼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 겸해서 3년 전에 죽은 영희의 약혼자 수삼의 묘를 찾아가 비석을 세워주고 추도식을 올려주는 것³⁶⁾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해바라기』속 극중 인물 최영희는 「동경 유학을 다녀왔고, 연애경험이 있으며 구시대의 습관과 도덕에 반기를 드는」³⁷⁾ 인물이다. 앞서 논한 미네코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여성의 면모를 어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영희는 첫 사랑이었던 홍수삼이 죽은 후 일본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리순택의 끈질긴 구애 끝에 그와 결혼했다.

극중 인물 최영희 외모를 묘사한 부분을 발췌해 보면 아래와 같다.

얼굴 전테로보면 그리 남에업시 입부달 것도 업고, 똑바로 뜬 눈 옷독선코 꼭담은입 여모지게 모힌살갓……어대로 보든지 조치못하게 말하면 결기가있는 괴승스런얼굴이라하겠지만, 조금큰 듯한입귀를 빼뜨름하게 꼭담은우에 조그만코가 종용히 휩싸고안겼는 것이 어데라고 꼭집어낼수는 업서도, 침착하고 냉정한 리지(理智)와 구든심지(心志)가잇서보이였다. 그러나 좁은듯한 이마 알에 박인큼직한눈은, 시원하고도 다정하야보이였다. 그중에서도-얼는보아서는 모르지만- 약간 길까말까한 속눈썹이 더욱히 조화가되어보이였다. 만일 이녀자에게 이눈이업섯드라면 그얼골에 서는 다만 쌀쌀한 바람이 돌뿐이요, 자칫하면 괴승스럼은 억지가 비집어 나올뿐이다.³⁸⁾

최영희의 외모는 남보다 우월하게 예쁜 것은 아니지만, 똑바로 뜬 눈, 오펝하게 선 코, 꼭 다문 입에서 침착하고 냉정한 이성과 굳은 심지가 엿보인다. 시원하고 다정한 큰 눈이 아니었다면 쌀쌀하고 역세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최영희는 이제 막 신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시부모에게 드릴 폐백 문제로 친정어머니, 신랑과 옥신각신 한다. 예배당에서 있었던 신랑 답사에 이에 좀처럼 보기 힘든 신부 답사 중에 「자각있는 사람은 모든의식이나 관습에서 버서나야한다」³⁹⁾고 주장했기에 신식으로 결혼을 한 것도 사실 언행이 불일치하여 속상한데, 결혼식에도 오지 않을 것처럼 하던 시댁에서 폐백마저 요구하니 불만인 것이다. 또한 예배당에서 영희의 답사를 듣고 있던 목사가 찾아와 영희의 답사 내용을 찬성할 수 없다며 한마디 하고 간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 집으로 온 최영희는 신랑 순택이 들고 온 축하 전보 속에서 죽은

36) 심진경(2013)「세태로서의 여성-염상섭의 신여성 모델소설을 심으로」『大東文化研究』제82집, p.86

37) 송민경(2007)「염상섭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만세전, 해바라기, 삼대를 중심으로」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38) 『염상섭전집1』[1], 민음사(1987), pp.111-112 이하 「해바라기」의 인용은 민음사에서 간행된 『염상섭전집 1』을 기준으로 페이지지만 표기하기로 한다.

39) 염상섭, 앞의 책[1], p.115

옛 애인의 동생 홍수철이 보낸 축하전보를 발견하고 그녀의 첫사랑이었던 홍수삼을 떠올린다.

최영희에게 있어 「자신이 생각한 바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고, 일종의 고통」⁴⁰⁾이었다. 첫 사랑 홍수삼이 죽고 다시는 그녀에게 사랑은 없다고 여긴다. 그를 잃고 그 어떤 것도 그녀의 헛헛함을 채워줄 수 없었다. 자신을 사랑해 주던 운명이 늘 자신만을 받들어 주다가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자 또 한 번 받들어 주기를 애원하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술 활동에 의존한다. 한때 최영희는 「예술을위하여 결혼을 희생하더라는 생각이업지만예술뿐아니라, 예술이외에는 모든 것이 심상하고 시들하야다」⁴¹⁾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홍수철 앞에서 당당히 선언했다. 하지만 예술이 자신의 고통을 구원하리라 믿으면서도 그 믿음에 배신당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때를 대비해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곁에 두려고 한다.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오늘 리순택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지금의 리순택과의 결혼은 온연히 사랑이 전제된 결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예술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이 전제된 결혼이었다. 만약 예술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도 순택의 사랑과 경제력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안전장치로 준비해 둔 셈이다. 이미 「주판질도 다해보고 압뒤경우도 다살펴본뒤에」⁴²⁾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결혼인 것이다. 그야말로 최영희는 「한아로만 만족할녀자는 아니다. 사랑을 원하여 아니되면 예술의길을 차질수있고, 예술이 만족할수업스면 다시 사랑의품을 차지라하며, 이것저것 다 아니되면 금전에라도 매달릴」⁴³⁾ 수 있도록 결혼을 선택한 것이다.

....저편의 사랑을 바다주는 것은 행복은 아니라도 유쾌한일이요, 또한 신성한 의무이다. 그러나 사랑을 바다주는 보수로 밥을 먹여달라는 것은 이편의 권리다. 조금도 구구한 일도아니려니와 불유쾌할것도업다. 물질의 보수가 있는 사랑을 밋고서, 덩신덕보수가 있는 예술을 이편에서 사랑 하는 것은 그다지 행복이라고는 못할지모르지만 아모모순도업거니와 불유쾌한일도아니다. 이것이 아마 데일현명한 인생의길인지도모른다....⁴⁴⁾

그녀의 결혼 충족 조건은 사랑을 받아주는 의무의 대가로 밥을 먹여달라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순택의 가정이 넉넉지 못하다거나 순택의 사회적 지체가 보잘 것 없었더라면

40) 염상섭, 앞의 책[1], p.116

41) 염상섭, 앞의 책[3], p.125

42) 염상섭, 앞의 책[1], p.116

43) 염상섭, 앞의 책[3], p.126

44) 『염상섭전집1』[3], p.123

그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쿄 유학을 한 만큼 결혼 후에도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자 했던 최영희는 리순택이 결혼을 제안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며 결혼을 수락한다. 그리고 결혼 후 남편과 상의도 없이 첫사랑 홍수삼이 묻혀 있는 목포시 H군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야 남편에게 첫사랑의 묘가 있는 곳이며 비석과 차례를 지내주고 싶다는 말을 하여 그를 당황하게 만들지만, 순택은 아내가 하고 싶다고 하니 모든 뜻을 들어 주며 끝이 난다.

이렇듯 최영희의 결혼은 본인 스스로가 앞 뒤 다 따져보고 결정한 결혼이라고 한 만큼 리순택은 첫째 열렬한 애정을 주고 있고, 둘째 자신이 하는 예술에 든든한 경제적 후원자가 될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리순택이 첫사랑 홍수삼을 대체할 만큼 강한 애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모순을 내포하고 있지만, 어차피 최영희는 죽은 첫 사랑 홍수삼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으니, 리순택이 아닌 세상 어느 남자도 홍수삼이 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최영희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적당히 해 주면서 경제적인 안정과 예술 활동의 지원을 받고자 했다.

5. 유사점과 차이점

근대는 전통적 공동체나 제도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 하고 개인의 행복 추구에 가치의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근대는 더 이상 제도권 아래에서 개인이 희생되고 인내하기를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각성하고 자신 내면의 진실에 귀 기울이기를 요구하였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근대 교육이라는 혜택과 함께 찾아 왔다.

당대 새로운 사회 코드로서 등장한 신여성은 단발과 양장을 갖추었다는 외적인 특징 외에도 신식 근대 교육의 혜택으로 인해 수동적이고 억압적 위치의 여성이 주체적 개인으로 변모해 나가면서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중 다른 제 개념들이 개방화 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보수적인 테두리 안에 존재했던 여성의 연애마저 근대화의 ‘신여성’이라는 개념의 물결을 타고 봉인해제의 시점에 도달했을 때 사회는 여전히 이원적 양상을 띠기도 했다. 왜냐하면 특히, 여성에게 있어 낯설고 새로운 사랑의 형식을 표상했던 연애는 「발달한 문명을 상징했던 서구의 사랑 형식에 대한 동경을 배경으로 하면서 전통사회로부터 축적된 혼인의 자유에 대한 요구와 결합」⁴⁵⁾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45) 김지영(2014) 「연애의 형성과 초기의 근대소설」 『현대소설 연구』 제27집, p.56

두 작품 속 여 주인공 미네코와 최영희는 신교육을 받아 현대적 감각을 지닌 근대 도시 여성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두 여성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한 사람만을 위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결과로서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 봉건적이고 가부장적 제도 아래 부모가 정해 준 배우자와 결혼하는 순종적인 여성이 아닌,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짝을 고르기 위해 상대의 질투심을 이용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본 후에 결혼에 이른 것이다. 자의식에 능터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는 근대적 교육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미네코는 배우자를 고르는 과정에서, 최영희는 결혼 직후에 연애 강자적 위치를 이용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미네코는 노노미야를 유혹하고 싶은 욕심에 연애 강자적 위치를 이용해 산시로를 노노미야의 연적으로 의식하게 만들었다. 결국 노노미야를 유혹하고자하는 미네코의 이기적인 목표달성은 실패로 돌아가고 애매모호한 미네코의 행동에 산시로만 철저히 우롱 당한다. 최영희 또한 연애 강자적 위치를 이용해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 리순택의 청혼을 허락했고, 결혼 후 신혼여행을 갈 때에도 남편에게는 여행지를 함구한 채 마음대로 일정을 조정한다. 끊임 없이 최영희의 사랑을 갈구하는 리순택의 순정을 이용해 첫사랑 홍수삼의 묘를 찾아 묘비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하고자 하는 최영희의 이기적인 목표달성이 리순택에게는 쓸쓸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다.

결혼 이후 보인 미네코와 최영희의 행보를 통해 자신의 이상이나 욕망, 향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철저히 그녀들 스스로의 입장에서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유사점을 보인다. 여성 주인공들에게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는 상대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검증의 과정이었다. 노노미야는 미네코가 존경할만한 학구적인 인물이었으나 미네코를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인물이었다. 노노미야는 미네코와 비행기를 두고 언쟁하는 장면에서 결국 대답을 포기하고 「여자들 중에는 시인이 많군요」⁴⁶⁾라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미네코를 한낱 감성주의에 지나지 않는 시인으로 치부해 버린다. 그러나 제3의 남자는 미네코를 애정과 관심으로 이해하고 결정적으로 그녀 스스로가 따를 수 있는 남자로, 미네코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최영희 역시 첫사랑으로 인한 상실감으로 결혼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하고자 했지만 상실감의 고통을 예술이 채워주지 못할 경우를 우려해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고 경제력을 지녀 예술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리순택이라는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그녀 입장

46) 나쓰메 소세키, 앞의 책[5], p.123

에서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다.

한편, 두 여성이 근대 교육을 받은 도시 여성의 측면에서는 공통적 면모를 보이고 있으나 엄밀히 나누어 보면 미네코와 최영희는 여성해방에 관한 사고와 실천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무릇 신여성이라고 하면 전통적 유교관에 맞서 구습(舊習)을 타파하고 여성 해방론을 주장하며 자유 연애나 자유 결혼을 적극 찬성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면모는 미네코보다 최영희에게서 보다 확실하게 나타나는 데 평소 결혼식을 비롯한 모든 형식적인 행사에 대한 거부감을 피력해 왔던 최영희는 어쩔 수 없이 서양식으로 결혼하는 자신에 대해 언행일치 하지 못한 점을 자책한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에게 남녀평등을 몸소 실천하는 답사를 통해 억압적인 여성에서 벗어나 좀 더 개방적이고 자주적인 여성이 되기를 피력한다. 이에 비해 미네코는 자유 연애를 지향하고 실천했으나 산시로에게 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보다 연애 강자적 입장에 있던 노노미야에게는 건방져 보이는 것을 염려하는 등 되도록 순종적이고 유순한 여성의 이미지를 주고 싶어 했다. 반면 세련되고 근대적인 옷차림이라든지, 강력한 구습타파를 주장한다든지, 결혼 후에도 최영희처럼 계속 사회활동을 하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네코가 최영희와 같은 신여성의 모습을 하기에는 사고적이나 실천적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 두 여성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결혼을 통한 금전적 의존도 측면에서 최영희는 리순택의 경제력에 대해 노골적으로 강한 집착을 보였다. 그것은 결혼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받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예술 활동을 지원 받고자 했으며 그것 또한 좌절되었을 때에는 돈을 통한 물질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였다. 반면 미네코는 노노미야가 명예는 있으나 국내에서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연애 감정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 통장을 보유하고 산시로에게 금전을 융통해 주기까지 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결혼을 통한 금전적 의존도는 크지 않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여성의 결혼 후 혼전 연애상대에 대한 미련에 대해서도 최영희는 첫 사랑 홍수삼을 잊지 못해 결혼 후에도 묘를 찾아 비석을 세우고 그를 기리는 모습을 보였다. 미네코는 비록 연애 과정에서는 산시로를 대하면서도 늘 노노미야에 대한 미련을 보였으나 제3의 남자와 결혼 이후에는 두 남자에 대한 미련을 언급하거나 생각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듯 두 여성의 결혼에 있어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봤을 때, 1900년 10월부터 1902년 12월까지 약 2년 1개월간 영국유학을 경험한 소세키가 조형해 낸 당대의 엘리트 신여성 미네코는 남자 대학생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당당히 학문의 세계인 도쿄 제국대학에 들어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학문적인 면에서나 심리적인 면에서 대등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연애 강자 노노미야 앞에서는 신여성의 면모라기보다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시각에 부합하는 순종적이고 유순한 모습이길 원했다는 측면에서 미네코는 모순적인 신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염상섭이 조형해 낸 사상과 실천의 합치를 늘 갈구하며 결혼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기 원했던 최영희의 결혼관과는 대치되는 부분이다. 결국 소세키는 당시 일본 사회가 근대 여성 교육에 힘쓰며 여성의 여권 신장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발맞춘 성숙된 사회분위기 조성이 여전히 미흡했음을 은연중에 노출시키고 있다.

1912년 9월부터 1920년 1월까지 약 7년 4개월간 일본유학을 했던 염상섭 또한 최영희의 결혼이 결국은 그녀의 자아실현이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통해 여전히 조선 사회가 여성을 피부양자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염상섭은 최영희의 결혼을 통해 그녀 스스로가 신여성이라 외치면서도 남성의 경제적 후원과 부양의 대상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폭로하고 있다.

6. 결 론

이상으로 나쓰메 소세키의 『산시로』와 염상섭의 『해바라기』속 여성주인공의 결혼관에 대해 비교·분석한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네코는 도쿄제국대학의 근대교육을 받은 도시여성으로, 연애 감정의 줄타기를 하던 노노미야도, 산시로도 아닌 오빠의 친구라는 제3의 인물과 결혼하게 된다. 미네코가 자의식에 눈 뜬 여성인 만큼 그녀의 결혼은 자신이 바라던 조건들을 두루 갖춘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한 스스로의 탐색이자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며 절충적인 주체적 결정의 결과였다.

둘째, 최영희는 도쿄 유학을 한 엘리트로 첫 사랑 홍수삼과의 연애가 실패로 끝난 후 리순택의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하지만 마지못해 하는 결혼은 결코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져 본 후에 여러 안전장치를 설정한 이후,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셋째, 두 여성의 결혼 결정은 각자의 조건에 부합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유사점을 가지는 동시에 결혼이라는 사회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이상이나 욕망을 충족시키려 했다는 점과 지고지순한 순애보적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또 연애 강자적 위치를 이용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넷째, 두 여성이 근대 도시 여성의 면모를 보인다고는 하나 여성해방에 관련된 사고와 실천적인 측면에서 최영희가 미네코보다 신여성에 부합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물론 개화기 최고의 근대 엘리트 대학교육을 받은 미네코와 최영희는 결혼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간섭이나 강요를 배제한 채, 배우자가 될 상대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반응을 살폈다는 점에서 주체적인 결혼관을 가진 여성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최영희는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에게 남녀평등을 몸소 실천하는 답사를 통해 억압적인 여성에서 벗어나 좀 더 개방적이고 자주적인 여성이 되기를 꾀한다. 이에 비해 미네코는 도쿄제국대학 재학시절부터 자유연애를 지향하고 실천했으나 자신보다 연애 강자적 입장에 있던 노노미야에게는 건방져 보이는 것을 염려하는 등 되도록 순종적이고 유순한 여성의 이미지로 각인되길 원했다. 또한 결혼을 통한 금전적 의존도 측면에서 최영희가 리순택의 경제력에 대해 노골적이고 강한 집착을 보인 반면 미네코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 여유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견됐다. 즉, 최영희는 여전히 남성에 비해 취업이나 사회 입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입장에서 빈곤과 소외감을 해소해 줄 재력 있는 리순택과 결합을 통해 자신의 욕구 충족과 자아실현을 도모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네코는 자신 소유의 통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금전을 타인에게 융통해 줄 여유까지 있었으므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선택 아래 자신에게 애정과 관심이 있고, 스스로가 존경할 만 한 사람이라면 연애 상대의 빈곤함은 결혼 조건의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소세키가 조형해 낸 당대의 엘리트 신여성 미네코는 자의식이 강하긴 하지만 여전히 당시 시대의 남성이 선호하는 순종적이고 유순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길 원했다는 측면에서 모순적인 신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염상섭이 조형해 낸 사상과 실천의 합치를 늘 갈구하며 결혼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기 원했던 최영희의 결혼관과는 대치되는 부분이다. 결국 소세키는 당시 일본 사회가 근대 여성 교육에 힘쓰며 여성의 여권 신장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발맞춘 성숙된 사회분위기 조성이 여전히 미흡했음을 은연중에 노출시킨 것이다.

염상섭 또한 최영희의 결혼이 결국은 그녀의 자아실현이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통해 여전히 조선 사회가 여성을 피부양자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최영희는 그녀 스스로가 신여성이라 외치면서도 남성의 경제적 후원과 부양의 대상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세키와 염상섭은 두 여성의 결혼을 통해 그 시대의 여권의 미성숙함과 당시 신여성의 모순을 폭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염상섭, 권영민(1987)『염상섭전집』1권, 민음사, p.115
나쓰메 소세키(1966) 漱石全集第四卷 『三四郎』[1]~[12], 岩波書店, pp.5-309
나쓰메 소세키(1982) 名著復刻全集 『三四郎』[5], 春陽堂, p.171
도미타 쇼지 저, 유재연 옮김(2008)『그림엽서로 본 일본 근대』논형, p.54
김경수(2010)「1차 留學時期 康想涉 文學 研究」『語文研究』제38권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294
김지영(2014)「연애」의 형성과 초기의 근대소설 『현대소설 연구』제27집, 한국현대소설학회, p.56
노종상(2011)『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산시로(三四郎)』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체질” 연구』『인문학연구』Vol.85,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305
송민경(2007)『염상섭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 만세전, 해바라기, 삼대를 중심으로』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심진경(2013)「세태로서의 여성 - 염상섭의 신여성 모델소설을 중심으로」『大東文化研究』제8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86
안유진(2003)『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연구 -1920~30년 중·장편소설을 중심으로-』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유상희(2006)『나쓰메소세키의 산시로 소고-산시로와 미네코의 연애를 중심으로』『일본근대문학-연구와 비평-』Vol.5, 한국일본근대문학회, p.56
이명순(2002)「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산시로(三四郎)』에 나타난 미네코의 이중의식 고찰」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55
최혜실(1993)「염상섭 소설에 나타나는 근대성-돈과 애정의 갈등구조를 중심으로」『先淸語文』제21집, 서울대학교, p.172
황수진(1998)「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상 연구」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5
大泉政弘(1989)「『三四郎』論—美禰子・自己処断としての結婚—」, p.153
鈴木すず江(2003)「『三四郎』と美禰子の装い」『青山学院女子短期大学紀要』Vol.57, p.88

논문투고일 : 2014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7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7월 20일

 <要旨>

나쓰메 소세키의 『산시로』와 염상섭의 『해바라기』 속 여성주인공의 결혼관 비교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 가운데 핵심적인 것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네코는 도쿄제국대학의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대학재학시절 연애 감정의 줄타기를 하던 노노미야도, 산시로도 아닌 오빠의 친구라는 제3의 인물과 결혼을 한다. 미네코가 당대를 대표하는 엘리트 여성으로서 그녀의 결혼은 자신이 바라던 조건들을 두루 갖춘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한 스스로의 탐색 과정을 거쳐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체적 결정을 내린 결과였다.

둘째, 최영희는 도쿄 유학을 한 엘리트 여성으로 첫 사랑 홍수삼과의 연애가 실패로 끝난 후 리순택의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하지만 결코 가지못해 하는 결혼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져 본 후에 여러 안전장치를 설정한 이후,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셋째, 두 여성의 결혼 결정은 각각의 조건에 부합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유사점이 있다. 동시에 결혼이라는 사회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이상이나 욕망을 충족시키려 했다는 점과 지고지순한 순애보적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지닌다.

넷째, 두 여성이 근대 초기 도시여성의 면모를 보인다고는 하나 여성해방에 관련된 사고와 실천적인 측면에서 최영희가 미네코보다 신여성에 부합되는 인물이다. 개화기 최고의 근대 엘리트 대학교육을 받은 미네코와 최영희는 결혼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간섭이나 강요를 배제한 채, 배우자가 될 상대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반응을 살폈다는 점에서 주체적인 결혼관을 가진 여성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최영희는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에게 남녀평등을 몸소 실천하는 답사(答辭)를 통해 억압적인 여성에서 벗어나 좀 더 개방적이고 자주적인 여성이 되기를 꾀한다. 이에 비해 미네코는 도쿄제국대학 재학시절부터 자유연애를 지향하고 실천했으나 자신보다 연애 강자적 입장에 있던 노노미야에게는 건방져 보이는 것을 염려하는 등 되도록 순종적이고 유순한 여성의 이미지로 묘사되었다.

Ideas on marriage comparison of Female Heroine in 『Sanshiro』 of Natsume Soseki and 『Sunflower』 of Yeom, Sang Seop

If I summarize the only core point analyzed in this letter, is as follows:

First, Mineko is female who was touched the modern education in Tokyo International college and got married to third person who is brother's friend other than Nonomiya, Sanshiro that she had rope dancing. Mineko is the elite female and her marriage was a result decided with most rational, subjective passing through search by herself to select her spouse who equipped conditions that she hopped.

Second, Choi, yeong hui is an elite female to have overseas to Tokyo, and since she failed love between Hong, Su Sam and got marriage since passionate love from Lee, Sun Taek, however, it was not forced to get marriage since she checked loss and gain and she settled a lot of safety equipment and she decides the reasonable decision to meet her desire.

Third, Decisions of two female's marriage have the similar points decided by the resonable decision to each one's condition agreed by each other. At the same time, it has the same point that they will fill up their perfection or desire by using the social system saying marriage.

Fourth, Even two females are showing the recent urban female looks, but in the essential side, Choi, yeong hui is the more agreeable person to the new female than Mineko. Mineko and Choi, yeong hui, most highest and recent elite college had excluded interference from others to her marriage and we think that she has the marriage idea in the point that she has the endless test and reaction. However, Choi, yeong hui says to become to more open and independent female from getting ride of the suppressive female thru address in reply. Comparing this, Mineko heads for free love from being in school of Tokyo International College. To Nonomiya positioned as an erotic love, she worried to be shown a pretentious to Nonomiya who stands as love stronger.